

IBK투자證, IPO 주관건수 부진… “中企 시너지 확대할 것”

지난 3월, 양적확대 추구 목표 밝히
올해 IPO 주관 총 2건… 전년대 절반
당국 규제강화·국내증시 부진 영향
코넥스 시장 성과는 ‘여전’… 업계1위
분위기 전환 위해 시장공략 나설 것

IBK투자증권은 올해 기업공개(IP
O) 평가 도약을 목표로 연초부터 시장
공략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
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
권의 서정학 대표는 지난 3월 올해 상장
청구 건수 기준 코스닥 9건, 코넥스 7건
등 총 16건을 목표로 양적 확대를 추구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그
러나 올들어 IPO 주관 건수가 총 2건으
로, 2021년(4건), 2022년(4건), 2023년



IBK투자증권 본사.

/IBK투자증권

(5건)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상장을 추진했던 기업의 IPO도
무산되기도 했다. 대표 주관 계약을 맺
은 원포유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진
철회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올해 IPO주
관 건수가 부진했던 것은 당국의 규제
강화와 국내증시의 부진이 영향을 미쳤
다”면서도 “올해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480억원을 기록해 작년(234억원)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IBK투자증권의 강점이던 스펙(SPA
C) 합병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라이콤, 신시웨이, 벨록 등 3
건을 주관했으나 올해 IBKS제19호스
팩과 합병 상장한 에스피소프트의 1건
을 주관하는 데 그쳤다. 이와 달리 경쟁
사인 하나증권은 올해 3건을 기록, 지난
해(2건)에 비해 증가세를 보였다. 업계

에서는 IBK투자증권이 스펙 합병 기업
의 본질에 맞는 IR 포인트를 찾아내는
점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은 PR
필요성 때문에 직장장을 선호하는 반
면, 중소기업들은 미래 가치를 반영
한 밸류에이션(기업가치)과 지분 분산
요건이 없어 스펙 상장을 선택하는 경
우가 많다”며 “특히 오히려 지분율이 낮거
나 높은 기업가치를 원하는 기업들은
스펙 상장엔 주목한다. 이에 따라 스펙
합병에 유리한 업종과 기업을 파악하
고,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프라이싱 능
력이 증권사의 핵심 역량으로 꼽힌다”
고 전했다.

다만 IBK투자증권은 코넥스시장에
선 여전히 성과를 내고 있다. IBK투자
증권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코넥스 시
장 개장 이후 현재까지 누적상장 주관

건수 총 58건으로 업계 1위”라며 “숙련
된 실무진이 다양한 상장 사례를 기반
으로 질 높은 공시자문을 제공하고 있
는 데다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
는 잠재력 높은 중소·벤처 기업들을 적
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BK투자증권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IPO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들의 도약 단계부터 성
장·성숙기에 걸쳐 동반성장을 이루고
회사 비전인 ‘국민과 중소기업에 필요
한 참 좋은 증권사’ 역할을 수행할 계
획”이라며 “IBK금융그룹·타금융그룹
및 전 중소기업과의 시너지 확대를 통
해 포지셔닝을 강화하면서 2025년까지
우량 중소기업 상장 건수를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프로야구·러닝 등 열풍… 증권사 ‘스포츠 마케팅’ 탑승

현대차증권, ‘기아타이거즈’ 후원
MZ세대 유입 등에 마케팅 효과 ‘톡톡’
유진투자증권, 러닝루 클래스 론칭

2030세대를 중심으로 스포츠 열풍이
불면서 증권사들도 브랜드 노출 효과를
누리기 위한 ‘스포츠 마케팅’이 한창이
다. 특히 프로야구의 인기가 급상승하자
메인 스폰서를 맡고 있는 증권사들은 관
련 이벤트를 적극 진행하는 모습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프
로야구가 천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열
풍이 불면서 스폰서로 나섰던 증권사들
의 마케팅 효과도 배가하고 있다. 지난
28일 현대차증권이 스폰서로 후원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는 ‘2024 시즌 KB
O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7대5로 역전
승을 거두며 우승했다. 당초부터 유력
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던 만큼 현대차
증권도 기아타이거즈를 활용한 최종 순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28일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식에서 이범호 감독을 행가래하고 있다.

/뉴시스

위 예측 이벤트, 승수 연계 이벤트 등의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승수
연계 이벤트의 경우에는 현대차증권 고
객이 아닌 일반 기아 타이거즈 팬들도
참여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았다. 경품
은 주로 현대차증권 상품권이었으며,
사용을 위해서는 현대차증권의 계좌 개
설이 필수다.

올해 프로야구는 관객 수 약 1088만
명을 넘기면서 전례 없는 흥행을 기록
했다. 특히 MZ세대의 유입이 늘어나자
일반 기업들을 포함해 증권사들도 야구
팬을 유치하기 위한 작업이 활발하다.
키움증권은 키움 히어로즈의 네이밍 스
폰서를 맡고 있으며, 키움금융그룹 전
체가 야구단을 후원한다. 삼성 라이온

즈 역시 계열사 후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삼성증권을 비롯해 삼성생명, 삼
성카드, 삼성화재 등을 모두 스폰서로
두고 있다. 이외에도 대신증권이 KT위
즈의 스폰서를 담당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확실히 효과가 있
다. 특히 가을 야구는 공중파에서도 방
영되는데 구장에 직접 오지 않는 어르
신 세대까지 시청하기 때문에 구단의
성적이 좋다면 TV에 해당 증권사 이름
이 계속 노출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젊은 층, 특히 여성들의 야구 유입
이 늘어나면서 굉장한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역시 야구 후원을 통해
브랜드 노출 효과를 본 증권사 중 하나
다. NH투자증권이 메인 스폰서로 후원
한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는 이번 시
즌 2049 시청률 동시간대 13주 연속 1위
를 기록하는 등 연일 화제를 모았다. N

H투자증권은 이를 활용해 최강야구팀
의 승리 시 100만원, 홈런 시 200만원 등
순차적으로 적립해 주는 ‘주식 모으기’
이벤트를 진행하며 관련 마케팅을 실시
했다. 해당 이벤트 역시 NH투자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나무증
권’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젊은 세대를 필두로 스포츠
활동이 유행을 타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다. 유진
투자증권은 지난 5월 달리기 동호회인
러닝루가 ‘2030세대’에게 인기가 높
다는 점을 이용해 ‘유진러닝루’ 클래
스를 론칭했다. 유진투자증권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클래
스다. 상반기에는 129명이 참여했으
며, 지난 8월에도 회차별로 30명씩 4차
례 진행했다.

하나증권 역시 2022년에 대한테니스
협회와 메인 스폰서 후원 계약을 체결
했다. 지난해에는 ‘테니스 페스티벌’,
올해는 ‘2024 테니스 챔피언십’을 개최
하면서 고객 소통과 스포츠 산업 발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금감원, 글로벌 금융회사 사칭 투자금 모집 경보

멕시코 회사채 투자 권유 업체 적발

A씨는 올해 10월 우연히 경제 관련 유튜
브 채널에서 고수익 해외 채권 투자 추천 영
상을 시청하고 N업체를 알게 됐다. A씨는
해당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회를 넘었고 공
정적 댓글이 많았고 해당 영상뿐 아니라 다
른 재테크 영상도 업로드돼 있어 사기를 의
심하지 못했다. 해당 영상 댓글에 포함된 링
크를 통해 N업체 홈페이지를 들여다 보니
다양한 채권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A씨
는 이중 수익률이 제일 높은 멕시코 채권이
실제 해외 정유회사인 것을 확인한 후 홈페
이지의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했다. ‘N업체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안내를 받게된 A씨
는 의심을 거두고 투자금을 이체했다. 이후
금전이 필요해 투자 후 7일 이내 환급 신청
시 수수료 없이 반한해 준다는 설명에 따라
A씨는 해지 요청을 했고 3일 뒤 입금된다는
메일·문자를 받았으나, 결국 투자금은 입금

되지 않았다. 앞서 본 긍정적인 댓글들은
‘조작 댓글’이었고 재테크 영상들은 다른 유
튜버의 영상을 ‘도용’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
칭해 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불법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이
와 관련한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금융회사
를 사칭하고 홈페이지 정보 등을 도용
해 멕시코 회사채 투자를 권유하는 업
체가 적발됐다. 불법업자들은 금융사
사칭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점 정보를
누르면 해당 금융사 SNS로 연결되게
만들어 위장을 한 뒤 투자자들을 교묘
하게 유인했다.

이들은 멕시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
는 국영 석유기업(P사) 회사채에 투자
해 고수익(연 16~17%)을 실현할 수 있
다고 홍보했다. 실제 P사 회사채 수익

률은 만기에 따라 5~10% 수준이지만
불법업자들은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
시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이다. 특
히 이들은 국내 증권사보다 해외 증권
사를 통해 채권을 투자하면 환차익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
실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해외 금융
회사를 사칭하며 누구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채권, 배당·부동산펀드 등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한 투자사기가 지속
되고 있다고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수익률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원리
금이 보장된다는 투자를 권유한다면
‘불법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
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고, 즉
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B증권,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추진

기술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 예방

KB증권은 기술 급성장에 따른 부작
용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금융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AI가
활용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상담
챗봇 및 머신러닝 기반의 상품추천 등
AI 기반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고객들
은 더욱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고객 정보의 오남용, 부당한 차
별 등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문
제점이 있다.

이에 KB증권은 AI 기술 및 법률 전
문성을 보유한 삼성SDS, 김·장 법률사
무소, 삼성KPMG 등 전문업체의 컨설

팅을 통해 AI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문제와 AI 학
습 데이터·모델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해 방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AI
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AI 거버넌
스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AI 거버
넌스 체계’의 수립 목표는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공정성,
다양성 등을 존중할 수 있는 윤리 원칙
수립 및 준수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인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내 규정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실무 부서에서 AI 관련 시스템·서비
스 도입 검토 시 검토 방법 및 AI 활용
위험 감소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
도록 AI 업무 매뉴얼을 제시하고, AI
서비스별 위험도를 측정해 산출된 위험
수준별 관리 및 모니터링 정책을 수립
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